

#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박형수\* · 유진호\*\* · 박부연\*\*\*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Hyung-Su Park\* · Jin-Ho Yu\*\* · Bu-Yeon Park\*\*\*

## 요 약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2011년 7차와 2012년 8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자료를 통합하여 남학생 607명, 여학생 543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의 관련요인을 스트레스의 원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7.0을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시 부모 두 분 중 한분이 태어난 곳이 한국이 아닌 학생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로 하였다. 자살생각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자살생각과 스트레스 원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단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비차비(Odds Ratio, OR)를 산출 하였으며, 복합표본을 설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교우들과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의 자살생각이 2.70배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과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의 자살생각이 2.50배 높았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가정,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스트레스의 원인 중 부모와 친구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자살 생각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e purpose, the study incorporated data of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1-2 and attempted to understand factors of their suicide ideation and reasons of stress, targeting 607 boy students and 543 girl students. For a statistical analysis, SPSS version 17.0 was used. During the analysis, the students one of which parents was not born in Korea were considered as thos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to be  $p < 0.05$ . To look into relations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reasons of stress with the former as a subordinate variable, the study figured out Odds Ratio(OR) through a simple logistics analysis and a complex sample was set for the analysis. Boy students had 2.70 times more suicide ideation due to stress from associates than girl students while girl students had 2.50 times more suicide ideation due to conflicts with parents than boy students. In conclusion, as there were various reasons of stress relating to individuals, families and school life which may affect suicide ide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ur society should pay attention especially to improvement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to prevent and control their suicide ideation.

## 키워드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s, Stress, Suicidal ideation  
다문화가정, 청소년, 스트레스, 자살생각

\* 주저자 : 경기의료재단 영광하나의원  
접수일자 : 2013. 03. 21

\*\* 전남과학대학 교수  
심사(수정)일자 : 2013. 04. 25

\*\*\* 교신저자 : 서남대학교 병원행정학과 교수  
게재확정일자 : 2013. 05. 20

## 1. 서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및 외국 근로자 등의 유입으로 인해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거주자는 2010년 2.8%, 2020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2010년 5,260명, 2011년 7,634명, 2012년 9,647명,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0년 5,260명, 2011년 7,634명, 2012년 9,647명으로 다문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우룡[3]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57.9%가 자신을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8.4%만이 한국인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이 상이한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들은 풍습과 문화가 서로 다른 부모와 학교등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을 증가시키고 자살생각이나 행동으로 이어진다[4]. 우리나라 청소년 중 남학생 14.1%, 여학생 22.9%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실제로 4.1%가 자살을 시도하였다[5].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생활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생활스트레스 중 친구나 동료 영역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6]. 따라서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문제 중에서 자살과 관련한 문제가 크나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가정,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스트레스의 원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관련된 스트레스의 문제점 해결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하였다.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질병관리본부의 주관으로 2011년 7차와 2012년 8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11년 75,643명과 2012년 74,186명으로 조사된 대상자에서 중·고등학교 남학생 607명, 여학생 543명, 총 1,150명이다.

### 2. 자료수집 방법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표본학년 학생들에게 1인 1대 컴퓨터를 배정하고 무작위로 자리를 배치하여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7].

### 3. 변수정의

#### 1) 독립변수

일반적 특성 변수에서 학년 구분은 중·고등학교, 아버지·어머니학력은 중졸, 고졸, 대졸, 모름으로, 동거형태는 친부모, 편부 혹은 편모, 양부친모 혹은 친부양모, 양부모, 비동거로 재구성 하였다. 거주지 규모는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로 재구성 하였다. 신체활동은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소보다 증가하거나 숨찬 정도의 신체활동의 합이 60분 이상 한 날로 '안함', '1-3일', '4일 이상'으로 재분류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는 '느낌'과 '느끼지 않음'으로, 주관적 행복 정도는 '행복함', '불행함'으로 재분류하였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문항에 속한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형편의 갈등, 선생님과의 갈등, 교우간의 갈등, 학업성적 문제, 건강문제, 외모의 갈등으로 재분류하여 '없다'와 '있다'로 구분하였다.

#### 2) 종속변수

자살생각에 관한 지표의 정의는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를 '없다'와 '있다'로 재구성 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7.0을 이용하였다. 통계분석 변수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였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 두 분 중 한분이 태어난 곳

이 한국이 아닌 학생을 다문화 가정 청소년으로 하였고, 결국은 그대로 처리하였으므로 총 빈도와 차이가 있는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은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로 하였다.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살생각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자살생각과 스트레스 원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비차비(Odds Ratio, OR)를 산출 하였으며, 복합표본을 설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 III. 결 과

####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1150명 중 남학생은 607명(52.8%)이고 여학생은 543명(47.2%)이었다. 중학생이 65.1%로 많았으며,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 29.1%로 많았고, 어머니 학력에서도 고졸이 33.5%로 가장 많았다. 동거형태는 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72.9%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에서 거주한 학생이 47.0%이었다.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은 학생이 각각 56.7%, 67.7% 이었고, 신체활동은 1주일에 1-3일을 하는 경우가 42.7%로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는 95.1%가 느끼지 않았으며, 86.3%가 행복하다고 하였고, 자살생각은 25.0%가 있다고 하였다(표 1).

#### 2. 스트레스 원인 특성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는 학생은 18.0% 이었고 남학생 18.3%, 여학생 17.7%로 비슷하였다. 가정형편으로 인한 갈등은 7.5% 이었고 남학생 8.7%, 여자 6.2%로 남학생이 조금 많았다. 선생님과의 갈등은 4.9%로 남학생이 6.4%, 여학생 3.1%로 남학생이 두배 가량 많았다, 교우간의 갈등 14.2%, 학업성적 문제는 39.2%로 남학생38.1%, 여학생 40.5% 이었다. 건강문제는 4.5%로 남학생 6.0%, 여학생 2.9%로 남학생이 훨씬 많았다. 외모의 갈등은 11.6%로 여학생이 14.6%, 남학생 9.0%로 여학생이 많았다(표 2).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남학생의 경우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53.8%로 자살 생각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31.9%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1$ ).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35.9%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1$ ), 주관적 행복정도의 경우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 49.6%로 자살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1$ ). 여학생의 경우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40.4%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1$ ).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47.2%로 자살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1$ ), 신체활동을 4일 이상 한 경우 41.7%로 자살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주관적 행복정도의 경우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 53.9%로 자살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1$ )(표 3).

#### 4.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남학생의 경우 교우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 31.9%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38.8%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교우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39.1%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학업성적의 문제가 있는 경우 34.9%로 자살 생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표 4).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 변수     | 빈도   |     | 남학생<br>(n=607) |     | 여학생<br>(n=543) |       | p-값 |
|--------|------|-----|----------------|-----|----------------|-------|-----|
|        | %    | N   | %              | N   | %              |       |     |
| 학년     |      |     |                |     |                |       |     |
| 중학교    | 65.1 | 406 | 61.8           | 392 | 69.2           | 0.058 |     |
| 고등학교   | 34.9 | 201 | 38.2           | 151 | 30.8           |       |     |
| 아버지 학력 |      |     |                |     |                |       |     |
| 중졸 이하  | 19.9 | 118 | 20.1           | 105 | 19.5           | 0.436 |     |
| 고졸     | 29.1 | 174 | 26.8           | 162 | 32.0           |       |     |
| 대졸 이상  | 27.8 | 142 | 28.9           | 118 | 26.6           |       |     |
| 모름     | 23.2 | 138 | 24.2           | 114 | 21.9           |       |     |
| 어머니 학력 |      |     |                |     |                |       |     |

|            |      |     |      |     |      |       |
|------------|------|-----|------|-----|------|-------|
| 중졸 이하      | 11.4 | 65  | 11.6 | 50  | 11.1 | 0.085 |
| 고졸         | 33.5 | 187 | 32.0 | 196 | 35.3 |       |
| 대졸 이상      | 31.0 | 162 | 28.9 | 175 | 33.6 |       |
| 모름         | 24.1 | 169 | 27.4 | 104 | 20.0 |       |
| 동거 형태      |      |     |      |     |      |       |
| 친부모        | 72.9 | 385 | 72.6 | 362 | 73.3 | 0.003 |
| 편부 혹은 편모   | 13.6 | 63  | 12.2 | 63  | 15.4 |       |
| 양부친모(친부양모) | 49   | 21  | 3.5  | 29  | 6.7  |       |
| 양부모        | 5.8  | 31  | 7.5  | 13  | 3.7  |       |
| 비동거        | 2.7  | 17  | 4.1  | 4   | 1.0  |       |
| 거주지 규모     |      |     |      |     |      |       |
| 대도시        | 39.2 | 216 | 38.1 | 197 | 40.4 | 0.774 |
| 중소도시       | 47.0 | 240 | 47.6 | 210 | 46.4 |       |
| 군지역        | 13.8 | 151 | 14.3 | 136 | 13.2 |       |
| 음주 유무      |      |     |      |     |      |       |
| +          | 43.3 | 266 | 45.2 | 211 | 41.0 | 0.231 |
| 흡연 유무      |      |     |      |     |      |       |
| +          | 32.3 | 218 | 37.6 | 126 | 25.9 | 0.001 |
| 신체활동       |      |     |      |     |      |       |
| 안함         | 36.0 | 182 | 29.3 | 243 | 44.2 | 0.000 |
| 1-3일       | 42.7 | 258 | 42.8 | 234 | 42.6 |       |
| 4일 이상      | 21.3 | 167 | 27.9 | 66  | 13.2 |       |
| 스트레스 정도    |      |     |      |     |      |       |
| +          | 4.9  | 39  | 7.2  | 11  | 2.1  | 0.000 |
| 주관적 행복정도   |      |     |      |     |      |       |
| 행복함        | 86.3 | 525 | 86.8 | 464 | 85.7 | 0.607 |
| 불행함        | 13.7 | 82  | 13.2 | 79  | 14.3 |       |
| 자살생각       |      |     |      |     |      |       |
| +          | 25.0 | 129 | 22.6 | 148 | 27.8 | 0.085 |

표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원인 특성  
Table 2. Subject's reasons of stress

| 변수        | 남학생<br>(n=607) |     | 여학생<br>(n=543) |    | p-값  |       |
|-----------|----------------|-----|----------------|----|------|-------|
|           | 빈도<br>%        | N   | %              | N  |      |       |
| 부모님과과의 갈등 |                |     |                |    |      |       |
| +         | 18.0           | 105 | 18.3           | 94 | 17.7 | 0.824 |
| 가정형편의 갈등  |                |     |                |    |      |       |
| +         | 7.5            | 48  | 8.7            | 30 | 6.2  | 0.152 |
| 선생님과의 갈등  |                |     |                |    |      |       |
| +         | 4.9            | 35  | 6.4            | 16 | 3.1  | 0.018 |
| 교우간의 갈등   |                |     |                |    |      |       |
| +         | 14.2           | 83  | 13.5           | 81 | 15.1 | 0.484 |
| 학업성적 문제   |                |     |                |    |      |       |

|        |      |     |      |     |      |       |
|--------|------|-----|------|-----|------|-------|
| +      | 39.2 | 210 | 38.1 | 213 | 40.5 | 0.512 |
| 건강문제   |      |     |      |     |      |       |
| +      | 4.5  | 30  | 6.0  | 15  | 2.9  | 0.043 |
| 외모의 갈등 |      |     |      |     |      |       |
| +      | 11.6 | 57  | 9.0  | 83  | 14.6 | 0.010 |

표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변수           | 남학생     |      |       | 여학생     |      |       |
|--------------|---------|------|-------|---------|------|-------|
|              | 자살생각(%) |      | p-값   | 자살생각(%) |      | p-값   |
|              | -       | +    |       | -       | +    |       |
| 학년           |         |      |       |         |      |       |
| 중학교          | 80.2    | 19.8 | 0.082 | 72.6    | 27.4 | 0.764 |
| 고등학교         | 72.7    | 27.3 |       | 71.2    | 2.4  |       |
| 아버지 학력       |         |      |       |         |      |       |
| 중졸 이하        | 71.7    | 28.3 | 0.417 | 62.7    | 37.3 | 0.178 |
| 고졸           | 81.0    | 19.0 |       | 77.2    | 22.8 |       |
| 대졸 이상        | 76.6    | 23.4 |       | 71.8    | 28.2 |       |
| 모름           | 79.3    | 20.7 |       | 74.7    | 25.3 |       |
| 어머니 학력       |         |      |       |         |      |       |
| 중졸 이하        | 70.5    | 29.5 | 0.108 | 61.9    | 38.1 | 0.141 |
| 고졸           | 78.6    | 21.4 |       | 72.5    | 27.5 |       |
| 대졸 이상        | 79.1    | 20.9 |       | 78.7    | 21.3 |       |
| 모름           | 86.3    | 13.7 |       | 68.4    | 31.6 |       |
| 동거 형태        |         |      |       |         |      |       |
| 친부모          | 85.3    | 14.7 | 0.000 | 77.6    | 22.4 | 0.061 |
| 편부 혹은 편모     | 80.8    | 19.2 |       | 65.2    | 34.8 |       |
| 양부친모 혹은 친부양모 | 75.0    | 25.0 |       | 76.2    | 23.8 |       |
| 양부모          | 46.2    | 53.8 |       | 48.3    | 51.7 |       |
| 비동거          | 48.1    | 51.9 |       | 65.9    | 34.1 |       |
| 거주지 규모       |         |      |       |         |      |       |
| 대도시          | 72.4    | 27.6 | 0.086 | 75.4    | 24.6 | 0.260 |
| 중소도시         | 79.3    | 20.7 |       | 68.7    | 31.3 |       |
| 군지역          | 84.0    | 16.0 |       | 74.7    | 25.3 |       |
| 음주 유무        |         |      |       |         |      |       |
| -            | 85.0    | 15.0 | 0.000 | 80.8    | 19.1 | 0.000 |
| +            | 68.1    | 31.9 |       | 59.6    | 40.4 |       |
| 흡연 유무        |         |      |       |         |      |       |
| -            | 85.4    | 14.6 | 0.000 | 79.0    | 21.0 | 0.000 |
| +            | 64.1    | 35.9 |       | 52.8    | 47.2 |       |
| 신체활동         |         |      |       |         |      |       |
| 안함           | 81.8    | 18.2 | 0.097 | 81.0    | 19.0 | 0.001 |
| 1-3일         | 78.5    | 21.5 |       | 67.4    | 32.6 |       |

|                  |      |      |       |      |      |       |
|------------------|------|------|-------|------|------|-------|
| 4일 이상<br>스트레스 정도 | 70.9 | 29.1 | 58.3  | 41.7 |      |       |
| -                | 78.3 | 21.7 | 0.094 | 72.4 | 27.6 | 0.510 |
| +                | 65.2 | 34.8 | 62.6  | 37.4 |      |       |
| 주관적 행복정도         |      |      |       |      |      |       |
| 행복함              | 81.4 | 18.6 | 0.000 | 76.5 | 23.5 | 0.000 |
| 불행함              | 50.4 | 49.6 | 46.1  | 53.9 |      |       |

5.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자살생각과 스트레스 원인과 관련요인

교우간의 갈등이 있는 남학생의 경우 갈등이 없는 학생보다 비차비 2.70(95%신뢰구간 1.353-5.423)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비차비 2.50(95%신뢰구간 1.196-5.237)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서는 동거형태, 음주여부, 흡연여부, 주관적 행복정도 변수를 통제 변수로 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음주여부, 흡연여부, 주관적 행복정도, 신체활동을 통제 변수로 하였다(표 5).

표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subjects' reasons of stress

| 변수       | 남학생     |      |       | 여학생     |      |       |
|----------|---------|------|-------|---------|------|-------|
|          | 자살생각(%) |      | p-값   | 자살생각(%) |      | p-값   |
|          | -       | +    |       | -       | +    |       |
| 부모님과의 갈등 |         |      |       |         |      |       |
| -        | 78.9    | 21.1 | 0.509 | 74.8    | 25.2 | 0.025 |
| +        | 75.5    | 24.5 |       | 61.2    | 38.8 |       |
| 가정형편의 갈등 |         |      |       |         |      |       |
| -        | 79.2    | 20.8 | 0.137 | 72.8    | 27.2 | 0.569 |
| +        | 68.6    | 31.4 |       | 66.8    | 33.2 |       |
| 선생님과의 갈등 |         |      |       |         |      |       |
| -        | 78.1    | 21.9 | 0.669 | 72.6    | 27.4 | 0.612 |
| +        | 81.4    | 18.6 |       | 66.3    | 33.7 |       |
| 교우간의 갈등  |         |      |       |         |      |       |
| -        | 79.9    | 20.1 | 0.025 | 74.4    | 25.6 | 0.044 |
| +        | 68.1    | 31.9 |       | 60.9    | 39.1 |       |
| 학업성적 문제  |         |      |       |         |      |       |
| -        | 75.1    | 24.9 | 0.058 | 83.1    | 16.9 | 0.000 |
| +        | 83.4    | 16.6 |       | 65.1    | 34.9 |       |
| 건강문제     |         |      |       |         |      |       |

|        |      |      |       |      |      |       |
|--------|------|------|-------|------|------|-------|
| -      | 78.2 | 21.8 | 0.885 | 72.8 | 27.2 | 0.367 |
| +      | 79.4 | 20.6 |       | 58.3 | 41.7 |       |
| 외모의 갈등 |      |      |       |      |      |       |
| -      | 77.7 | 22.3 | 0.301 | 72.0 | 28.0 | 0.665 |
| +      | 84.0 | 16.0 |       | 74.6 | 25.4 |       |

표 5.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자살생각의 관련요인  
Table 5. Factors of suicide Ideation according to reasons of stress

| 변수/기준       | 남학생                 | 여학생                 |
|-------------|---------------------|---------------------|
|             | Adjusted OR(95% CI) | Adjusted OR(95% CI) |
| 부모님과의 갈등/없다 | -                   | 1                   |
| 있다          | -                   | 2.50(1.196-5.237)   |
| 교우간의 갈등/없다  | 1                   | 1                   |
| 있다          | 2.70(1.353-5.423)   | 1.35(0.523-3.500)   |
| 학업성적 문제/없다  | -                   | 1                   |
| 있다          | -                   | 0.67(0.320-1.432)   |

Adjusted : 남학생-동거형태, 음주여부, 흡연여부, 주관적 행복정도, 여학생-음주여부, 흡연여부, 주관적 행복정도, 신체활동

IV. 고찰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언어와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문화적 차이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내의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식의 유대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하다. 그렇지 못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날로 커지고 있다[8]. 장덕희 등[9]은 교우들과의 외모 차이에 대한 인식이 심각 할수록 학교 적응이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가정 및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소극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교우관계나 학업성적의 문제로 인해 갈등과 방황이 대두되고 있다[10][11].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학교 관련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등으로 오는 강박증이 대표적이다 [6][12]. 따라서 스트레스는 청소년 자살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며, 미성숙 단계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성숙하여 쉽게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고 사료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논의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지만, 본 연구

의 결과 자살 생각율은 남학생 22.6%, 여학생 27.8% 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이 2.59배 높게 나타났다. 장은선 등[13]의 연구에서 여학생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 등에서 오는 가정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남상아 등[14]은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부모간의 언어적 문제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거부 혹은 제재적으로 지각할 때, 자녀는 부모의 의도를 불만이나 부정적인 평가 또는 적대적 훈육과 억압, 잔소리로 느끼는 자녀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다문화가정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과 가정의 환경에 대한 가정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교우간의 갈등이 있는 학생이 자살생각이 2.70배 높게 나타났다. 윤지인 등[15]은 교우관계에서 일반학생의 폐쇄적인 태도, 문화적인 차이로 따돌림을 당해 인격형성이나 자아존중감 형성에 걸림돌이 되며, 언어능력이나 생김새의 차이에서 놀림의 대상이 된다. 우룡[16]의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18.2%가 교우로부터 왕따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외모로 인한 왕따나 따돌림은 부모모두 외국인인 근로자 가정의 청소년 3.6%보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서 1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안병환[17]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았다. 이처럼 호감도가 낮다는 것은 남학생의 경우 교우들 사이에서 겪는 따돌림,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이 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크게 작용 할 수밖에 없어 자살을 생각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스트레스의 원인만 파악하여 자살생각에 대한 정확한 특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남·여 청소년들의 각각의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충분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 론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의 원인과 자살생각을 파악하고자 남학생 607명, 여학생 543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의 관련요인을 스트레스의 원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교우들과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의 자살생각이 2.70배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의 자살생각이 2.50배 높았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가정,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스트레스의 원인 중 부모와 친구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1] Kim JL, Joung WH, "Study on the Effect of recogni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life", J of 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Vol. 12, No. 3, pp. 87-102, 2012.
- [2] Statistics Korea, "2013 Youth Statistics", <http://kostat.go.kr>.
- [3] Woo R, "Study on the Effect of recogni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life", Journal of the Korea Youth Protection, Vol. 13, pp. 31-53, 2008.
- [4] Park, H.S., Jung, M.H., Yu, J.H.,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ence of Spouses and Depression of Korean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5, pp. 1181-1187, 2012.
- [5]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8th(2012)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tatistics", <http://yhs.cdc.go.kr>, 2012.
- [6] Huff, C.O., "Source recency, and degree of stress in adolescence and suicidal ideation", J of Adolescence, Vol. 34, No. 133, pp. 81-89, 1999.
- [7]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2012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http://yhs.cdc.go.kr>, 2012.
- [8] Kim JJ, Chong BH, Oh MH, "A Study on

Parenting Stress of Disabled Children's Fathers in IT era",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2, pp. 363-370, 2013.

- [9] Jang DH, Shin HS, "The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School Mal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7, No 3, pp. 123-147, 2010.
- [10] An HJ, "A Study on Schoo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 Rural City", J of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17, No 4, pp. 383-391, 2008.
- [11] Moon SH, An HJ, "Influences of Parental Attach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n Anger and Anger Expression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13, No 1, pp. 33-43, 2012.
- [12] Kim ST, "A Study on Leisure Activity typ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65-171, 2013.
- [13] Jang ES, Kim KW, Cho YJ, "The Effects of Adolescent Girls' Stress and Irrational Belife on Suicidal Ideation", J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4, No. 5, pp. 27-47, 2007.
- [14] Nam SA, Baik JS,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of Child and Early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9, No 1, pp. 3-12, 2011.
- [15] Yun JI, Choi BS, "An effect of a group GMIP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suitabil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The Kor J of Arts Therapy, Vol. 9, No 2, pp. 127-146, 2009.
- [16] Woo R, "Status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 Youth : Multicultural family status and direction of youth policy", Pyeongtaek University Multicultural Family Center, 2007.
- [17] Ahn BH,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Attitude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J of Holistic Education and Research, Vol. 16, No. 2, pp. 43-66, 2012.

저자 소개



**박형수(Hyung-Su Park)**

천진중의약대학 중의학 전공(의  
학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대  
체의학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의학박사)

※ 관심 분야 : 재활보건, 보건교육



**유진호(Jin-Ho Yu)**

남부대학교 의용공학

남부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선대학교 대학원(보건학 박사)

현재 전남과학대학 물리치료과 교수

※ 관심 분야 : 보건, 건강, 재활운동



**박부연(Bu-Yeon Park)**

2005년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2012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  
학 박사

2011년~현재 서남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보건행정  
학과 학과장

※ 관심 분야 : OCS, PACS, EMR